

일본의 섬유 업계 - 환경과 경제의 양립이 목표 <1/3>

일본에서는 2020년까지 온실 효과 가스(溫室 效果 gas)를 25% 삭감하자고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챌린지 25 캠페인(challenge 25 campaign)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오피스에도 CO₂ 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에코(eco) 상품의 선택과 알기 쉬운 환경 부하 정보(環境 負荷 情報)를 제공해주는 것 등이 소비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장기 불황으로 환경 투자는 힘이 빠진 것 같이 보이지만 경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사업의 성장이 불가결해지고 있다.

◎ 환경·경제 성장 비전

일본의 환경성은 ‘환경 경제 성장 비전(vision) 챌린지 25를 통한 경제 성장’을 발표하였다. 환경과 경제 성장의 양립이 환경 관련 수요를 늘리는데 연결되고 있는 것이며 정부의 신성장 전략(新成長 戰略)에도 반영해 나가려 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장 전략에서는 전략 분야의 하나로 ‘그린 이노베이션(green innovation)에 의한 환경 에너지 대국 전략(環境 energy 大國 戰略)’을 내놴다.

일본의 강점을 살린 성장 분야로서 환경 에너지를 들고, 2020년까지는 신규 시장 50조 엔과 신규 고용 14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대 지원으로서 고정 가격 매취 제도(固定 價格 買取 制度)의 확충 등으로 주택 오피스 등의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 기업 활동이나 생산 활동에서 배출물이나 폐기물을 제로로 하는 구조)’화, 혁신적 기술 개발을 계획보다도 빠르게 추진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면서 2020년까지는 온실 효과 가스의 25%를 삭감하고 2050년까지는 80% 삭감을 국제 공약으로 정하였다. 환경과 경제의 2가지를 함께 발전시키는 데에는 환경 금융을 촉진하거나 에코 포인트(eco-point) 제도, 그린 뉴 딜 기금(green new deal 基金) 등의 환경 정책을 통하여 경제를 재생시키거나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를 추진할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환경 선진국 일본의 모습을 제시 ② 산업 전체에서의 환경 투자와 비즈니스 찬스(business chance)를 늘리기 위한 사업 추진 ③ 환경 배려형의 주택이나 제품이 이용되어 판매를 향상시키는 환경 소비로 쾌적한 에코 라이프(eco-life)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추진 ④ 사람과 환경에 유익하고 지역마다의 자원을 살린 환경으로 지역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 ⑤ 경제 활동 중에서의 환경 가치가 평가되는 환경 경제 성장을 받쳐주는 기반 만들기’ 등이다.

여기에서는 지구 온난화 대책세(地球 温暖化 對策稅)를 도입하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는 한편으로, 일본의 물 환경 기술(水 環境 技術)을 아시아 지역으로 보급 추진하거나 일본계 정맥 산업(靜脈 産業 : 廢棄物 處理, 리사이클 事業 等) 메이저(major : 큰 기업들)가 해외로 널리 지원할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 부하 전체가 보이게 하는 것을 촉진하여야 하는 것도 있어, 기업이나 사회에 의하여 환경 보전을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순환형 사회(循環型 社會), 저탄소 사회(低炭素 社會)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 자원 소국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

2010년 5월 하순에 도쿄 빅 사이트(동경 Big Site)에서 ‘뉴 환경전(New 環境展)· 지구온난화 방지전(地球 温暖化 防止展)’이 개최되었다. 테마는 지키자 지구 · 새로 만들자 공생 사회였다.

이 전시회는 1992년의 ‘폐기물 처리전’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2000년에 ‘NEW 환경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환경 문제가 쓰레기 처리로부터 리사이클(recycle), 한단계 더 올라 3R(리유스 : reuse ; 리듀스 : reduce ; 리사이클 : recycle), 온실 효과 가스 삭감(溫室 效果 gas 削減), 생 에너지(省 energy)·신에너지(新 energy) 등으로 주변을 넓혀온 것과 같은 진보를 보여 왔다.

순환형 사회,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는 것도 자원이 적은 나라인 일본에게는 자원이나 에너지 문제가 경제 활동에 바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전부터 환경 비즈니스는 지구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대의(大義)로부터 시작되었

다. 지금은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도 그 환경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시대가 되었다. 그러한 첨단적 기술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환경 부하를 줄임으로써 아시아 중에서의 일본의 존재감이 높아진다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물 처리(水 處理), 태양광 발전(太陽光 發電), 전지 관련, 바이오-매스(bio-mass : 생물 유기체를 energy 자원으로써 이용하는 방법) 등이 섬유 관련 메이커(纖維關聯 maker)가 주력할 성장 분야이다. 환경과 경제의 양립은 ‘기업이 살아남는 전략’과도 합치하는 시대를 맞이하도록 하고 있다.♣